

↑ 코스피 2643.94 (+28.13)	↑ 코스닥 716.48 (+5.22)
↑ 금리 (미국 9년) 2.618 (+0.006)	↓ 환율 (원-달러) 1464.40 (-4.80)

연금개혁  
세대갈등 번지나  
구조개혁 힘로 예상  
08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반도체·전자 1분기 실적 갈리나

HBM 출하 감소, 메모리 약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흐림'  
LG전자, 신사업 성장에 '맑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전자업계의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 감소와 메모리 약세로 인해 회의적이다. 반면 LG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에도 HVAC(냉난방공조사업)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분석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2조353억원, 영업이익 1조230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시장 판매 호조와 냉난방 공조 사업(HVAC) 성장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반도체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은 회의적이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감소한 6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핵심 공급사인 엔비디아향 HBM 출하량

이 소폭 감소한 것이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이 최대치에 달한 상황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 AI 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의 6조6100억원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약세와 파운드리 적자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친 원인으로 메모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 D램 가격 하락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메모리 업황이 단기적으로 약세가 전망된다"며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반도체업체 실적 반등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M 외 메모리 시장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AI서버에 탑재되는 고부가 D램인 DDR5 16Gb의 평균 현물 거래 가격은 5.08달러로 한달전보다 6.4%p(포인트) 상승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는 4월에 오를 전망이고, D램 재고 조정 효과로 가격이 안정돼 올해 2·4분기 이후 D램 가격 상승도 예상되는 등 메모리 산업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트럼프發 달러 약세 예상 유럽·亞증시로 분산 투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김영익 교수 “은행 대출 변동금리 저축은 고정금리로 빨리 가입해야”  
염승환 이사 “트럼프 투자 늘리는 산업 중심으로 주식 확대도 방법”



이 가계부채로 물러가게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감소한다. 2003~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3.3% 상승했지만, 민간소비는 2.3%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23년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졌다”며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서비스 순서로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가 저성장의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이날 김 교수는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는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보험 회사에서 즉시 연금으로 2억원을 가입했는데, 그해 51만원을 수령했지만, 10년 뒤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령액이 28만원으로 줄었다”며 “한달 일해 30만원을 벌면 2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은 현금흐름을 가진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변동금리’로 받고, 저축은 고정금리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 트

럼프 정부의 관세(보복)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증시에 집중했다면 유럽·중국·일본·한국 증시로 분산·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투자를 확대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주식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염 이사는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며 콘크리트, 시멘트, 산업용 장비, 제조공장 자동화, 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의 종목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K화장품, 식품 등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작지만 확실한 체테크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10년 동안 증여세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므로, 기간과, 증여순서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1살 A씨가 미성년자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아버지가 주고, 6년 뒤 할아버지가 2000만 원을 주었다면 10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을 받아 과세대상이 되고, 세대 생략 증여로 30% 할증이 붙는다. A씨가 1살 때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아버지가 6살에 증여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10년이라는 기간은 현 수준에서 10년을 말한다. 26세라면 17세부터, 10세라면 1~10살까지, 25세라면 16~25세까지의 기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어 대권 가도 청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6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 /사진 뉴시스
- ▲ 한국노총 “尹 지금 즉시 파면해야… 농단 부러도 피할 수 없어”

- ▲ 민주당 “오늘 윤 선고일 지정 안하면 비상행동 격상… 광화문서 철야농성”
- ▲ 輿, 천안함 15주기 안보 행보… “민주, 자폭설 지금까지 사과 없어”

- ▲ 이준석 “尹 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 민주당, ‘출탄핵’ 땅치고 후회할 것”
- ▲ 해군, 서해수호의 날 계기 해상기동훈련… 수상함 30여척 참가



# “산불진화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히 조치”

## 한덕수 권한대행

“역대최악 산불기록 갈아치워 산불 71% 입산자의 부주의 탓 대처·예방 점검, 개선책 낼 것”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ha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반도체·원전 경쟁력 강화 2200억 규모 펀드 만든다

## 금융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정책금융기관서 75.8조 자금공급 연간 공급계획의 60% 상반기 진행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2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1000억원 신설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은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 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지난 2022년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21일까지 총 7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4월 말까지 예년(2023년 기준 109조3000억원)과 비

교해 13조원 늘어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당초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0억원 증액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예산이 반영·확정됨에 따라 올해 1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당초 정부 300억원, 산업은행 300억원, 민간자금 600억원으로 조성된 출자금은 정부 300억원, 산업은행 350(+50)억원, 기업은행은 100(+100)억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100)억원, 민간자금 350억원으로 공공부문에서 25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우리 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 원전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펀드도 신설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 “노후준비·부채관리 등 자산관리 컨설팅 필요”

## 축사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자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고 노후 준비와 부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 영역 외에도 민간 영역이 함께 보조를 맞추길 기대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 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난세의 소화제-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는 금융과 건강 행복이라



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 평생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부채관리를 해야한다”며 “자식에게 상속도 하고, 자신의 노후 간병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영역 외에도 은행·보험업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의 건강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금융산업과 헬스케어 서비스가 결합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 특히 보험업권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신탁·보험 등 많은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①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근익 KRX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② 참석 내빈들이 티타임을 갖고 있다. ③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티타임에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 “은퇴준비·재테크, 100세 포럼서 답 찾으시길”

## 개회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요즘 세상이 안팎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국외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세전쟁을 빚겨갈 수 없는 만큼, 대외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경제성장률도 1%대로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론도 부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내의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이 버텨준 덕에 위기 속에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융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힘듭니다. 각자 은

퇴준비와 재테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식, 손주에게도 좋은 가족으로 남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각자 저출생, 고령화, 가정생산성 저하, 수축 경제의 지속 속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시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가운데 어느 쪽이 유효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에서도 의미를 얻고,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공감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저금리 국면 지속 전망… 대출은 변동, 예·적금 고정 유리”

##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경제 저성장 대응 방안 등 강연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유지 강조  
“금융민주주의’ 시대 준비해야”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번갈아 찾아온다. 올해는 급격한 위기보다는 저성장에 가까울 것”이라며 “저성장은 차별화를 의미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김영익 소장은 지난 25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강연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트럼프 2기 출범과 정책 방향성 ▲환율 전망과 국내 경제 영향 ▲개인과 기업의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가 약 5년간 성장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했다”며 “트럼프는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이 커지는 와중,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의 막대한 수준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안보에는 회비를, 무역에는 관세를 요구

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세수 부족을 극복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석유 생산을 늘려 물가를 낮추겠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는 개인이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오는 204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성장률이 낮아도 금리만 오를 수가 없다. 금융소득이 감소세인 만큼 100세까지 건강과 근로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職)은 영원한 게 아닌 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업(業)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전망이다 만큼 대출은 변동금리로, 예·적금은 고정금리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탄력적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주체의 부채가 너무 많고, 정책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 차별화 때문에 자식세대가 부

모세대보다 가난해졌고, GDP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줄어 들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선 경제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경제 추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제시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모두가 금융을 공부하고,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개념이다”라며 “모두가 금융을 통해 부를 일궈내는 ‘금융민주주의’의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부동산 시장 흐름 ‘울·출·박’ 실수요 기반 환금성 따져야”

〈울통불통·출렁출렁·박스권〉

## 강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회복기 진단… 생존법 모색  
“투자시 무난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부동산 상승장이 아닌 회복기”라며 “시장 타이밍보다 가격 중심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시장 뷰,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시장 흐름을 ‘울·출·박(울통불통·출렁출렁·박스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회복기 시장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자녀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시공간을 공유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는 만큼 30대 아들, 딸이 사고 싶어하는 집을 사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며 “신혼부부부터 읍·면 거주민까지 젊은 세대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 흐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그는 “부동산을 고를 때는 편식하는 것이 맞다”며 “무조건 팔리는 상품, 즉 환금성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나 상가보다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부동산의 본질은 환금성에 있고 결국 잘 팔리는 것이 살아 남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자산 구성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을 자산의 50% 이하로 줄이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가난을 기억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을 선택적 소비재로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무난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보다 대중의 선택을 믿는 게 낫다”며 “시장에서는 미학이나 철학보다 실제 수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Fighting!**

생명보험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美 흔들릴 때가 기회… 글로벌 분산 투자 지금이 ‘적기’”

## 강연

염승환 이사  
LS증권 리테일사업부

트럼프 리스크에 美 증시 흔들  
일본·유럽 부동산 등 대안 부상  
“AI·증권 등 韓 시장 반등여력 충분”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들은 한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을 다각도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 ▲부채 축소 ▲제조업 부흥이란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주는 것만



염승환 LS증권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많고 받은 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안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염 이사는 “특히 관세를 세수 확보, 제조업 부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출 축소와 민간 자산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자산가들 사이에서 탈(脫)미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로마, 파리 등 유

럽 주요 도시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산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민간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고, 한국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염 이사는 “미국의 글로벌 주식 비중이 64%에 달하지만 향후 추가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낮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과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고려할 때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우 윈도우 업데이트 종료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며, 3분기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매도 해제, 상법 개정, 추경 등 여러 호재가 겹친 한국 증시에 대해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투자 전략에 대해 “미국 중심의 투자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일본, 유럽, 채권, 원자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을 매입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높고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 중심의 초기 단계가 마

무리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옮겨가는 전환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BYD의 급속 충전 기술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해 은행주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해소된 대형 증권사들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 시간 확대와 상법 개정으로 증권업 전반에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는 미국 증시가 불안정할수록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발언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지금은 과거와 다른 분산 및 전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감세 법안이 올해 말 자동 폐기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 미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노후 자산, ‘곳간’보다 ‘우물’이어야”

## 강연

김동엽 본부장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현금흐름 기반 자산 설계 강조  
노후 소득공백 대응 전략 필요

“나이를 먹으면 자린고비가 된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못 쓰는 것이다. ‘곳간’이 아닌 ‘우물’ 형태의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노후에는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이 요구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테크’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노후에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후생활비 마련 ▲연금맞벌이 ▲연금계좌 ▲종신보험 점검 등 노후준비 요령을 공유했다. 이어 노후준비 방안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48만원이다. 이를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월 337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퇴직한 부부가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달 337만원이 필요하다. 퇴직 후 월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

김 본부장은 ‘연금 맞벌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시기, 액수 등을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상무가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수령 수준과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88년 이후 군복무를 마쳤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군복무 1개월당 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연금수령액은 증가하지만 지급 건보료와 기회비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제는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과 종신보험을 눈여겨보라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와 본인의 사망 시기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 주택 가격이 수령연금보다 낮아져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가격이 더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배우자 혹은 상속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단 연금의 액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고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종신보험 약관 확인도 요구된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에 기재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납부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피보험자와 수익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을 여쭙으면 90%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서를 펼쳐 다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 시기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정상 수령의 70%만 지급하지만 소득공백 시기를 지울 수 있다. 일반적인 수령자가 조기수령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선 73~75세가 지나야 한다. 건강상태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0대라면 연금계좌 전략이 필수다.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ISA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ISA계좌에 3년간 가입한 후 60일 이내 ISA계좌에 재가입하거나 만기 납입하면 된다. 연간 추가납입액의 10%를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한다.

김 본부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 아닌 행동이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일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유산취득세 도입… 새 절세 전략 필요”

## 강연

호지영 세무사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상속세, 75년 만에 개정 초읽기  
공제 확대·납세 방식 등 변화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75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상속세”라며 “상속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만큼, 바뀌는 법안 내용에 적합한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강연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 공제를 상향한다.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따로 부과하게 된다”며 “오는 2028년 예정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호 세무사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 취득세 도입 이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상속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호 세무사는 “물가 상승,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의 공제 한도인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14배 가량 올랐고, 이에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아가 중장년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안은 18~20억을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산이 20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가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 넘는 분들은 상속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상속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호 세무사는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변경되면서 인적 공제가 상향되고, 상속 시 납세의무도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며 “최적의 분배 방안을 마련해, 상속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호 세무사는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여순서에 따라라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제 기준이 지난 10년간이라는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며 “혼인·출산 시에도 증여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제공되는 만큼, 증여 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호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개편되는 법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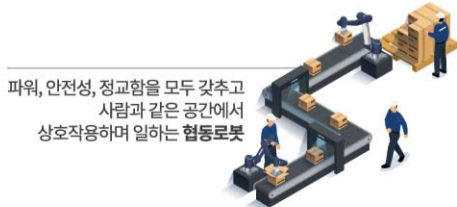
세상에겐  
내일의 기술.



두산에겐  
오늘의 기술.

두산로보틱스

사람과 함께 일하는  
두산의 협동로봇



파워, 안전성, 정교함을 모두 갖추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일하는 협동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노동력 문제에 답이 되는 기술  
사람과 로봇의 시너지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두산은 지금,  
사람을 대신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던 로봇 기술을 넘어,  
사람과 함께 일하며, 사람을 돕는 협동로봇 기술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 李, 대권주자 입지 공고화... 野 선수교체론은 수면 아래로

민주당, 박스권 지지율 탈피 기대  
李, 바로 안동 산불화재 현장 향해  
다시 현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 이재명 사법리스크 주요 혐의별 재판 상황

혐의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특혜	위증교사	대복송금	업무상배임
대선 과정에서 "故김문기 몰랐다" 발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관련 "국토부협박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2022년 9월 8일	2023년 3월 22일, 10월 12일 (백현동 사건 추가 기소)	2023년 10월 16일	2024년 6월 12일	2024년 11월 19일
기소 시점	서울고법 형사6-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서울고법 형사3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1심 진행 중	1심 무죄 2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뉴시스 그래픽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

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 이변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 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

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 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현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李 "사필귀정"... 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법부당한 법 해석

을 적용해 내린 소위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리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 1면 '李, 공직선거법...'서 계속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짚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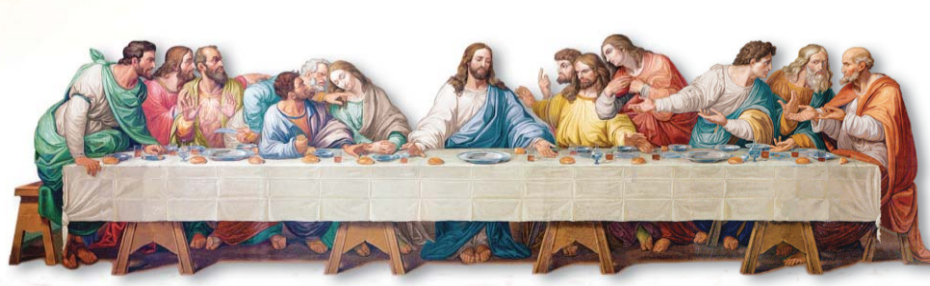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예진 기자

watv.org

### 불확실의 시대

# 가장 확실한 약속 유월절

## 오늘, 평안하십니까?



어떤 위기에도 견고한 방패막이가 되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겠다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유월절'.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포도주]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15~20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이 우리 안에 거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확실한 희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새 언약 유월절이 성경대로 복원돼 175개국 7800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신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 2025년 유월절 대성회에 초대합니다.

유월절(逾越節, Passover)은 '제일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성력 1월 14일(양력 3~4월경) 지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며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13절, 마태복음 26장 17~28절, 요한복음 6장 53~54절)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 유월절을 성경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 하나더넥스트 랩 시리즈

안정적인 삶을 위한 균형잡힌 투자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은퇴 전/후 손님을 위한 미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



## 하나더넥스트 K배당재투자랩

국내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0.6%, 후취연 1.2% · 기본형 : 후취연 1.5%



## 하나더넥스트 글로벌인컴랩

해외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0.8%, 후취연 1.0% · 기본형 : 후취연 1.5%

랩상품 Point

- 안정성 추구 전략으로 수익 다각화
- AI 알고리즘을 통한 투자 최적화 추구
- 손님 니즈에 따른 투자 지역 선택 가능(국내 / 해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0164호(2025.01.17~2026.01.16), CC브랜드250117-0267

하나증권



# 연금개혁 ‘세대갈등’ 번지나… 구조개혁 논의 힘로 예상

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에 불리 3040 의원들, 특위 재구성 요구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 중심돼야”

여야 “세대간 균형 맞출것” 해명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이견 보여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된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돼 기성세대에 유리한 구조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의 원 8명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이 소외됐으며, 미래에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

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므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3040세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 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의 주축이 됐던 여·야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

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진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런 요청을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여당에서는)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입법까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앞서 논의됐던 구조개혁안들이 청년 세대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출생률 반등 없이는

지급액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청년 세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명확하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만큼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연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의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줄었지만… 여전히 ‘강남불패’

과거 거래위축 속 가격은 되레 올라 전문가 “풍선효과·시장 왜곡 우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거래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6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대치동과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일부 매수 문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금 조달 여건 등으로 실제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시행 첫날인 24일 이후에는

문의 자체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은 있었지만 매수자들이 실거주 요건과 대출 조건 등을 부담스러워해 대부분 무산됐다”며 “현재까지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 엘스 인근 중개업소도 “규제 발표 전후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있으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 직전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한 단지들도 있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부

터 23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거래 21건 중 13건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중개 거래 기준으로 표본수가 적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토허제 지정 이후의 흐름을 봐도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달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청담·삼성·대치)은 토허제 지정 전 2년간(2018년 6월2020년 5월) 총 6856건이 거래됐지만 지정 후 2년간(2020년 6월2022년 5월)에는 1936건으로 71.7% 감소했다.

잠실동은 4456건에서 814건으로 무

려 81.7% 줄었고, 청담동(-61.4%), 대치동(-60.1%), 삼성동(-31.5%)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가격은 되레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 가격변동률은 지정 전 2년간 22.66%에서 지정 후 23.82%로 더 커졌고, 잠실동도 같은 기간 20.79%에서 22.5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3.3㎡당 평균 시세는 대치동이 6437만원에서 8745만원으로 35.9%, 잠실동은 5758만원에서 7898만원으로 37.2% 상승했다. 청담동과 삼성동도 같은 기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풍선효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턴트 부 수석은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입주 요건 강화로 전세 공급이 줄고, 풍선효과로 강동구·성동구·마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과거처럼 시장 흐름을 되레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2020년에도 거래만 줄고 가격은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며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 반복적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유효기간을 오는 9월 23일까지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장 여부 및 인근 지역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 동양생명, 순익 17% 증가… CRM지점이 견인

지점 51곳 중 연도평가 1위 달성 설계사 정착률·계약유지율 최고

동양생명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3102억원을 달성했다. 17.1% 증가한 수치다. 고객관계관리(CRM) 지점을 필두로 영업전략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26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영등포구 선유동에 있는 CRM지점은 건강보험판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존 계약을 분석한 후, 부족한 보장을 제안하는 컨설팅 영업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CRM 지점은 지난해 동양생명 지점 51곳 중 연도평가 1위를 달성했다. 상품 경쟁력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사 정착률과 계약 유지율을 높인 결과라는 의견이다.



동양생명 CRM지점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생명

13차월 설계사 정착률은 평균 96%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국내 보험설계사 총 60만6353명 중 13개월차 정착률은 47.3%다. 이 중 생명보험 설계사 정착률은 36.9%다.

지난 1년간 CRM 지점의 25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평균 94.8%다. 지난

2023년 생명보험업계 평균(60.7%)을 상회한다.

이영자 CRM 지점장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 추천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사업 전개

MG 블루 웨이브 인사·노무 컨설팅 올해 전국 80% 금고 참여 목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문가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펼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블루 웨이브’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558곳이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새마을금고 약 350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80%에 달하는 금고에서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진단 컨설팅은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 아울러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조리한 관행, 조직 내 갈등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 및 구성원 간 소통 경영을 위한 근무부 자율화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소통 컨퍼런스 등을 시행하고 구성원들의 직장 경험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최태원 “초불확실성 시대, 상법개정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

## 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간담회

기업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강조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우려도  
“비대한 규제, 성장에 도움 안돼”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개정과 관련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다른 ‘인노운(unknown)’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가능한 한 미루게 되기 때문에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으로 조속한

불확실성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취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너무 많은 비대한 규제는 모든 사람의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키다 보니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고 현재사회 문제를 푸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철학”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간 우리는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해 이익을 취해왔는데 이 모델은 거의 수명을 다해간다”며 “통상 압력 문제도 있고, 솔직히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제조를 없앨 순 없고, 계속 가긴 가되 모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어 AI 종속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제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타기는 AI”라며 “AI를 어떻게 제조에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더 많이 잘 갖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AI에 필요한 여러 재료, 소재들을 만드는 것은 잘하지만 AI 전체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년형 올레드 TV. /LG전자

## LG전자 올레드 TV 신제품 출시

42형~97형 다채... AI 기능 강화

LG전자가 2025년형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LG전자는 오는 27일부터 LG전자 베스트샵 강서본점, 대치본점 등 국내 주요 매장에서 신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북미·유럽 등 150개국에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은 ▲프리미엄 라인업 올레드 에보(M5/G5/C5) ▲일반형 올레드 TV(B5)로 구성되며, 42형부터 97형까지 다양한 크기로 출시된다. 디스플레이 알고리즘과 유기 화합물 적층 구조를 개선해 일반형 대비 최대 밝기가 3배 향상됐다. 또 조도와 관계없이 ‘퍼펙트 블랙’을 구현해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AI 기능도 강화됐다. 매직 리모컨에 AI 버튼을 탑재해 시청 이력을 분석하고 최적의 콘텐츠와 화질을 추천한다. AI 에이전트는 음성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과 요청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혜민 기자 hyem@

## 한화 이사회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참여

한화 이사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화 이사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가결했다. 한화는 지분율(33.95%)에 따라 회사에 배정된 신주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추후 변동가능·5월 29일 발행가액 확정 예정)에 인수한다. 초액 9800억원 규모로, 재원은 보유현금과 금융조달을 통해 마련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 입찰을 통한 신속한 현지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회사의 성장으로 한화 주가 가치를 제고하고 동시에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한화가 배정받은 물량 100%를 인수해 우량 자회사 성장을 지지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도 48억원 규모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다른 경영진들도 자율적으로 주식 매수에 참여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 한국엔컴퍼니그룹, 북미 생산량 대폭 확대

## 조현범 회장, 글로벌 전략 점검 美 배터리·타이어 공장 증설 방침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사진)이 국가 핵심기술력 강화와 미국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방점을 둔 전사적 차원의 글로벌 전략 점검·실행을 주문했다. 특히 시장 변화에 맞춰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26일 한국엔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열린 경영혁신회의와 지역전략회의(RSC)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한 달간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글로벌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계열사·대륙별로 연쇄 개최했다. 회의는 조 회장이 직접 주재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올해 북미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테네시주에 있는 납축전지 배터리 공장

과 타이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장은 연간 150만대 생산 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프리미엄 AGM 배터리 생산량도 2030년까지 500만대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한국엔컴퍼니는 올해 그룹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납축전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북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축전지는 지난해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글로벌 기자 및 열관리 시장 확대에 배터리 사업 성장세가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엔솔-델타 일렉, 美 ESS 사업 맞손

가정용 시장 4GWh 규모 공급 예정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4인 기준 약 40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향후 주택용 뿐만 아니라 전력망,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다. 인버터, UPS(무정전원공급장치)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며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라인을 갖춰 올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과 현지 생산 역량’, 델타 일렉트로닉스의 ‘전차,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올해 하반기 내 하이브리드 인버터(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를 통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가 탑재된 차세대 주택용 LFP(리튬·인산·철) 올인원 제품을 미국 내에서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두산에너지빌, 체코 대통령 ‘스코다파워’ 방문

체코 원전사업 기대감 고조

체코 대통령이 두산에너지빌리티 자회사를 찾으며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체코 플젠에 위치한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플젠 지역 내 주요 산업체를 순방하는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한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증기터빈 생산 설비를 살펴보고, 체코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관련 두산스코다파워의 준비 현황과 두산에너지빌리티로부터 이전 받을 예정인 발전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체코는 신규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는 증기터빈을 공급하고, 원자로, 증기발전기



지난 25일(체코 현지 시각)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왼쪽 첫번째)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왼쪽 두번째)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증기터빈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원전 주기는 한국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페트르 파벨 대통령에게 증기터빈 제작 역량을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알래스카 LNG, 조선·철강 노리지만... '사업성'은 불투명

쇄빙선 건조가능, 韓 조선 수혜기대 LNG 기자재 등 철강업계도 주목 극지 공사비 부담에 수익성은 의문 "정권 바뀌면 정책 리스크도 커져"

국내 산업계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신중론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리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



삼성중공업 쇄빙선.

/삼성중공업

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후 수출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알래스카 남부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총

개발비가 총 387억달러(약 57조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조선 및 철강 업체들이 꼽힌다. 알래스카의 극한 환경에서 작업 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필수인데 해당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 일본 등 제한적이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노바텍과 계약한 아크7급 쇄빙 LNG 운반선 6척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역시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와 쇄빙 LNG 운반선 22척 공동 건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가스관 건설과 LNG 터미널 구축에 대규모 철강재가 필요한 만큼 관련 철강, 강관 업체들도 기회요인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파이프, 피팅 등 LNG 플랜트 관련 기자재와 LNG 선박 등에 필요한 고강도 철강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낮은 사업성을 지적하며 선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높은 인프라 건설 비용이 있다. 알래스카의 극심한 기후환경과 지형적 어려움으로 인

해 송유관 건설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87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비는 약 200억달러(약 2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카타르, 호주 등에서 진행된 LNG 프로젝트 대비 초기 투자비가 2~3배 비싼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도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내 과도한 경쟁도 변수로 지목된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서 수출되는 LNG는 파이프라인 구축비가 적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 가능한 데 비해 알래스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LNG 사업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로 추진되는 만큼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ooul.co.kr

## CJ대한통운

### 쓱닷컴 100% 도착보장 '스타배송' 전담 운영

CJ대한통운이 27일 공식 론칭하는 SSG닷컴의 100%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을 전담 운영한다.

양사가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 중심의 '쓱 새벽배송'에 이어 비식품·생활용품 중심의 '스타배송'까지 합작하며 이커머스 고객들에게 한층 빠르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G마켓에 이어 SSG닷컴으로 스타배송 도착보장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CJ-신세계 물류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스타배송' 도착보장서비스 도입을 맞아 CJ대한통운과 SSG닷컴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스타배송 쓱 오네' 오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배송 쓱 오네' 오픈 프로모션 첫 구매 고객에 할인 쿠폰 제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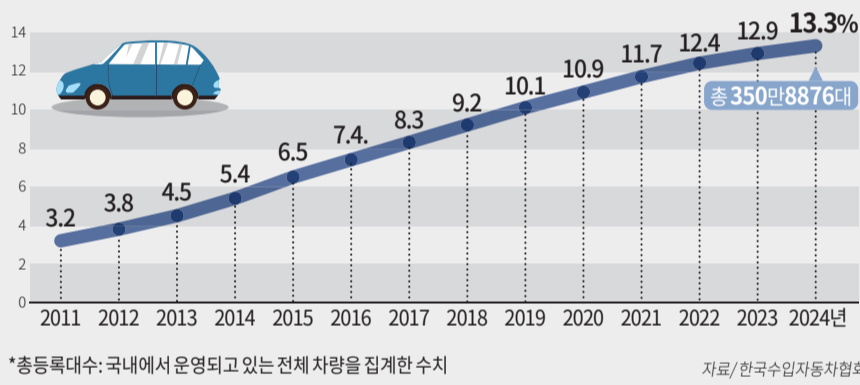
먼저 일주일간 매일 30가지 단독 특가 상품을 스타배송 도착보장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스타딜'을 선보인다. 첫 구매 고객에게는 스타배송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최대 1만원 할인)을 준다.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중 '스타배송' 상품을 1회 이상 구매하고 고객 중 160명을 추첨해 스탠드 TV, 무선청소기, 커피머신 등 인기 가전과 신세계 상품권,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오네' 이벤트를 진행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네'만의 도착보장서비스 강점을 더욱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커머스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국내 수입차 총 등록대수 비중



## 국내 車시장, 수입차 강제 10년 새 6배 넘게 늘었다

국내 등록 수입차 350만대 돌파 전체 車 대비 점유율 13.3% 기록 벤츠·BMW 중심 소비 선택지 확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가 350만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불과 10년 새 200만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입차는 총 350만 8876대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2629만 7919대) 등록대수의 13.3%다.

지난 2011년 당시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59만 8558대로 전체 자동차의 3.2% 수준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1년보다 6배 성장을 이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8%(94만대)로 최다 등록 지역이었고, 서울 19.5%(68만대), 인천 8.8%(31만대), 부산 8.3%(29만대), 경남 6.2%(22만대)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은 순위였다. 수입차 차량 분석 결과 79.8%가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은 41.8%(147만대)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38.0%(133만대),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6%(55만대)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차량은 1%(4만대) 남짓이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수입차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승용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22.9%(80만대)였다. 이어 BMW 20.5%(72만대), 아우디 6.6%(23만대), 폭스바겐 6.1%(21만대), 렉서스 4.1%(14만대) 순으로 집계됐다.

볼보 3.5%(12만대), 미니 3.4%(12만대), 토요타 3.2%(11만대), 포드 2.8%(10만대), 테슬라 2.7%(9만대) 등의 브랜드도 10위권에 들었다.

상용차 브랜드는 볼보트럭(1만 8123대)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볼보트럭 점유율은 등록된 전체 수입차의 0.5%, 상용차의 35.8%를 차지했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지난 30년간 수입차에 새 브랜드와 모델이 계속 등장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자동차 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중기부, M&A 평가비용 2000만원 지원

M&A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M&A 중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중개 역할 분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본 사업은 M&A 거래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확대가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M&A 정보망으로 개편 ▲매도희망기업 대상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등이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번 개편으로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M&A 거래정보망은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M&A 거래정보망은 M&A 정보망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또 국내의 M&A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M&A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M&A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M&A 정보망과 M&A 파트너스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매출액 400억이하 중소·벤처기업 등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의 40%,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HMM, 신임 대표이사에 최원혁 선임

글로벌 물류업계 40년 이상 경력

국내 최대 규모 해운사 HMM이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40여년 이상 근무한 물류전문가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한다.

HMM은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최원혁 대표이사(65·사진)를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최대표이사는 CJ대한통운, LX판토스 등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물류전문가다. 3M코리아, 로레알코리아, CJGLS(CJ대한통운) 등을 거쳐 2015년부터 LX판토스에서 근무했다. 2015년 12월 LX판토스 최고경영자



(CEO)로 부임한 뒤 2023년 8년 동안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9~2023년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지냈다. 특히 8년간

LX판토스에서 CEO로서 보여준 글로벌 물류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역량, 조직관리능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따라 김경배 대표는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최원혁 사장을 비롯해 이점영 컨테이너사업부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고, 서근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양성운 기자



LOTTERIA™

# 감자연구소 못난이 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 진하고 고소한 체다크림치즈소스!

\* 상기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KT, MS와 AI 역량 끌어올린다... 인공지능 전환 박차

## MS AI 투어 인 서울

파트너십 결과·AX 추진 전략 제시  
AI 커스텀 모델 등 6종 솔루션 공개  
'AI 스کیل링 이니셔티브 추진' 발표  
대기업 경영진과 'AX 리더 씨밋'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국내 AI 혁신과 역량 제고에 속도를 낸다.

KT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 참가해, 지난해 9월 체결한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진행 성과를 공개하고, 교육 부문 협력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의 AX(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AI 투어에서는 별도 전시관



지난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김영섭 KT 대표(왼쪽)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CEO 겸 이사회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KT

을 마련해, 전사적 파트너십 실행 결과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AX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KT 전시관은 프리미엄 파트너 존에 2개 부스로 운영됐다. 이 자리에서는 ▲

한국형 AI 커스텀 모델 ▲보안 강화형 퍼블릭 클라우드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 ▲탄소 배출량 관리 AI 어시스턴트 ▲사내 업무 혁신 사례 ▲서비스제공형GPU(GPUaaS) ▲업

무용 대화형 AI 에이전트 등 6종의 AX 솔루션이 공개됐다.

KT와 MS는 AI 교육 분야 협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KT와 함께 'AI 스کیل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해, 한국의 AI 리더십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이미 AI 교육 센터 설립과 전문 교육 커리큘럼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KT와의 파트너십 주요 성과로는 내부 혁신, 솔루션 개발, 시장 진출 등이 소개됐다. KT는 MS와 협력해 사내에 AX사업 전문 조직 'AX 딜리버리 전문센터'(가칭)를 출범시키고, 국내 산업계 전반의 AX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KT는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AI'를 MS와 공동 개발 중이다. 한국형 AI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이해하고, 역사·철학·사회를 학습한 AI를 의미한다. 양사는 MS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로드맵에 맞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한편, AI 투어 하루 전인 지난 25일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CEO가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만나, 산업계 AX 가속화 및 AI 스کیل링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KT와 MS는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함께 'AX 리더 씨밋'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산업 간 협업을 통한 AI·클라우드 분야 시너지 방안이 논의됐다. KT는 글로벌 빅테크 솔루션을 활용해 성과를 낸 해외 사례와, 이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KT는 향후 AX 리더 씨밋을 정례화해, 업계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국내에 'AX DNA'를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배달 플랫폼, 규제보다 혁신·재투자 필요”

'K-플랫폼 가치 조망' 주제로 토론회  
배달앱으로 폐점률 ↓, 상권 활성화 ↑  
글로벌 진출 위한 정책환경 필요

국내 외식산업 성장을 이끈 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과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디지털경제3.0 포럼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에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경나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이용업주에 추가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코로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식시장 위축 및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여러 국내 연구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폐점률을 낮추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는 배달 앱 업체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이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통해 시장 전반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재투자를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IT 플랫폼 기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성장해왔고, 이는 시장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면서 "국내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네이버·카카오, 주주총회 안건 전부 가결

양사 정기 주주총회 동시에 열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전격 복귀  
네이버·카카오 대표, 연임 성공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가 같은 날 나란히 열렸다.

26일 동시에 개최된 주총을 통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네이버로 전격 복귀한다. 포털 업계 최고 매출을 올린 최수연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카카오 주주총회와 함께 주총 회장 밖에서는 카카오 콘텐츠CIC 다음(DAUM) 분사와 카카오VX 매각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네이버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제26기 주주총회에서 이해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네이버 이사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이해진 창업자의 능력을 높이 샀다. 그는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이 변화하던 때를 비롯, 주요 패러다임 전환기에 독자 전략으로 네이버를 안정적으로 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네이버 이사회는 이 창업자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금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이 창업자는 이날 이사회의장으로도 선임됐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IT 포털 기업 최초 연매출 10조원을 기록한 만큼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었다. 그는 네이버의 AI 개발 및 활용 방안 수립을 진두지휘하며 네이버의 AI 전략인 '온 서비스 AI(On Service AI)' 방향성을 정립했다. 온 서비스 AI는 네이버의 AI 원천 기술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밖에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는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 교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를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노혁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도 재선임됐다. 이어 ▲제26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카카오도 제주도에서 열린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 주총에서 정신아 카카오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또 사외이사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의 재선임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보수 한도를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한도를 낮추는 안건 또한 가결됐으며,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지에 경기도 성남시를 추가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에서 주총을 진행하면서 '감금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카카오 분사 추진 의혹에 관해 "지금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중점"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분사는 기존의 분사와 다르다"며 "기존 신규 사업에 따른 분사라거나 카카오 특과의 의존성이 높은 데도 사업 성장 동력을 위한 분사를 진행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편의성 개선 제미나이 플래시 적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앱에 구글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플래시'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미나이 플래시를 기반으로 '카카오 T 퀵·배송'에 'AI 주소 자동 붙여넣기' 기능을 탑재한 뒤 접수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 줄었다.

AI 주소 자동 붙여넣기는 사용자가 메시지에서 주소, 수신인,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긴 문장의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 카카오 T 퀵·배송 서비스 화면을 띄우면 AI가 필요한 정보만 인식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이다.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데이터가 뒤섞인 텍스트 성분을 분석해 구조화하는 '파싱(parsing)' 프로세스를 AI 기술로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현정 기자

## SK브로드밴드,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사업 본격화

한국전력기술에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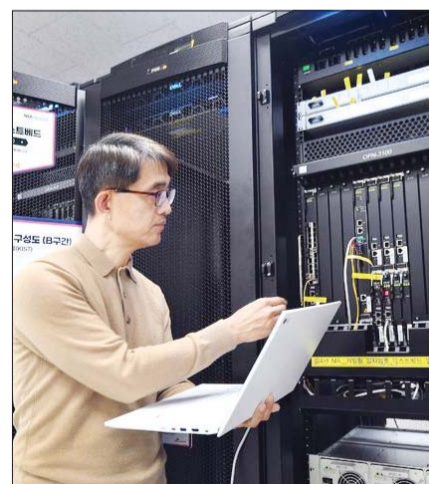
SK브로드밴드가 양자내성암호(PQC) 전용회선 사업을 본격화한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전력기술에 PQC 전용회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상용서비스 출시 이후 첫 사업 수주다.

이번 PQC 전용회선 구축으로 한국전력기술 본사와 현장 사무소 전체 구간을 오가는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양자키분배(QKD)와 PQC로 구분되는데, 이번 사업 수주에 PQC 전용회선이 핵심이다.

QKD는 양자 역학 특성을 이용해 송수신 양방향에서 암호키를 생성·분배하는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고, PQC는 양자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거리 제약 없이 제공된다. QKD를 활용해 매출이 발



SK브로드밴드 구성원이 판교에 위치한 양자 테스트베드에서 PQC가 적용된 암호전송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생한 국내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PQC 전용회선의 경우 미래 양자컴퓨터 해킹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금융, 의료, 국방 등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 양자암호통신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 ‘주주 주머니 털어 투자?’… 잇단 유상증자에 뿔난 개미들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 발표  
주가 급락, 계열사 주식도 ‘흔들’  
“대규모 영업흑자 속 납득 어려워”

삼성SDI, 2조 규모 유상증자 공시  
주가 6% 하락… 투자심리 위축  
“상법개정 의식한 결정 가능성도”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삼성SDI 등 대기업의 잇따른 유상증자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주주 주머니 털어 투자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 대신 주식 시장에서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하는 손쉬운 방식을 택한다는 비판이다.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주가도 시들해졌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는 62만 8000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19일 장중 77만40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급락하기 시작해 이날까지 17%(종가 기준) 떨어졌다.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 6000억원어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손재일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했다. 이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유럽, 중동,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지에 전략적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며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다. 전체 유통 주식의 13.05%에 해당하는 595만500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발행한다는 것이다.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 주식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과 주주들 사이

에서는 대규모 영업흑자를 올리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매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임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가 폭락과 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총수 일가 쪽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는 23일 김승연 그룹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가 약 3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역시 지난 14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 주가가 6% 넘게 하락했다. 회사는 이 자금을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은행 등 금융회사 등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모두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을 통해 이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신 부담은 기존 주주가 지게 된다. 지분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출 금리도 오르고 채권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투자자는 온라인 종목토론포방에 “결국 개미 호주머니 털어 투자하고, 대주주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상증자 발표가 논란으로 번진 사례

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했지만, 당시 경영권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요구 끝에 계획이 철회됐다.

잇단 유상증자 발표를 두고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 대표는 “유상증자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상법 개정을 의식한 결정일 가능성도 있다”며 “경영진이 법 개정 전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려 한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결정과 명확한 자금 활용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상법 개정 전에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편법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주주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MBK, 유동성 없이 공수표… 회생안 거짓말”

흡플러스 회생안 신뢰도 논란  
금감원·신영증권 “이익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국민 불신은 당연”

흡플러스의 회생절차 추진을 둘러싸고 ‘신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단체(ABSTB) 전액 변제 방침과 함께 사채 출연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금감원과 주요 채권자인 신영증권은 여전히 회생안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의 전단체 변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영증권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K가 유동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며,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MBK의 대응 방식에 대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조조정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면서, 운용사인 MBK는 수수료만 챙긴 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MBK 같은 GP(사모펀드 운용사)는 펀드 수익과 무

관하게 막대한 연간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며, “대기업 총수 못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고 있다. 국민의 불신은 당연하며, 금감원도 같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 등 워크아웃 사례에서 시장이 신뢰를 보낸 건,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며, 흡플러스 사례와의 차이를 부각했다.

신영증권도 흡플러스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흡플러스는 지난 20일 법원 주재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 협의회’에서 신영증권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영증권 관계자는 “투자목적회사(SPC)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정식 초청도 받지 않았고, 카드사 참조인 자격으로 참석해 내용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자체에 사전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영증권은 흡플러스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 채권자 동의, 상환 재원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독당국과 주요 채권자가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흡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법 제218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금융채권과 거래채 권을 공정하게 변제해야 한다. 단, 사업 지속에 필수적인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우선 변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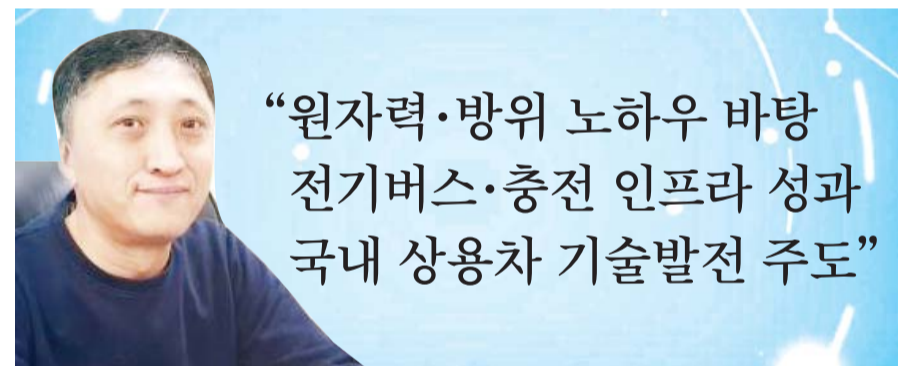
핵심 변수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다. 메리츠는 흡플러스에 1조 2000억 원을 빌려준 담보권자로, 전체 금융채권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하려면 담보권자의 75%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사실상 메리츠가 거부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담보권을 실행해 자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흡플러스 직원과 입점 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어 선부른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현대차증권, 3대 신평사 신용등급 ‘AA-’

현대차증권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3대 신평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평평가·NICE신평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및 자본적정성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 전망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이 유상증자로 인해 위험투자 확대로 저하됐던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당부분 회복되며 신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본완충력 확대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

고 덧붙였다. 한국신평평가 또한 현대차증권이 위험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익 누적과 상황전환우선주(RCPS) 및 후순위채 발행, 유상증자 등 적절한 자본확충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9월 유상증자 이전에도 순자본비율 479.2%,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 236.3%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닥 CEO 인터뷰

####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

“전체 매출 90% 전기버스가 차지  
충전기와 원전·방산 각각 5% 기여  
시기만 본 끼임 방지, 차별화 포인트”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다변화와 기술 발전을 주도해 글로벌 e-Mobility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전기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피라인모터스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는 “원자력 및 방위 산업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버스와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피라인모터스는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원자력과 방산 분야에서 계속제어 제품과 전원공급기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원전 산업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Q-Class를 확보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는 “축적된 기술력을 더 넓은 산업에 기여하고자 2016년 전기차 충전기 개발에 착수했다”며 “이후 전기버스 제조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라인모터스의 주요 사업은 전기버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다. 전체 매출에서 전기버스가 차지하

는 비중이 90%에 달하며, 충전기와 원전·방산 분야가 각각 5%씩 기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기버스 시장에서 차량과 충전 플랫폼, 관제 및 정비 플랫폼을 통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고 사후 관리와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라인모터스의 경쟁력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설계에서 나온다. 김 대표는 “AI 기반의 문 끼임 방지 기술과 국내 최초로 버스 내 USB 충전구를 설치한 점이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 사양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CS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은 피라인모터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품질 제일, 현장 중심,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처음 전기버스 사업을 위해 협력을 찾아가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킨 일기가 장 기억에 남는다”며 “아무도 전기버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시기였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진정성을 믿고 도전한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 노사정, 노동개혁 해법 찾기 시동 '정년 연장' 사회적대화 재개되나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모색**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논의  
'정년 연장' 등 주요 현안 쟁점  
경사노위, 4월까지 결론 도출

노사정이 노동분야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간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으나 작년 비상계엄 이후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노사정이 모두 모인 자리는 지난 1월 23일 '고령자 계속고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다"며 "(전문가들은)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김문수(왼쪽 여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생산인구 감소와 양극화, 산업전환의 위기감을 언급하며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류기섭 사무총장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 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통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이것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따라 복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3월까지 한국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4월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 수기자 hys@metroseoul.co.kr

## 6월부터 '지역내총생산 분기별' 공표

통계청,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통계청이 오는 6월부터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존의 연간 기준에서 분기별로 쪼개 공표한다.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신속·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을 주제로 '통계청-한은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GRDP는 지역GDP(국내총생산) 통계로 지방 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다만 그간 연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적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통계청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GRDP를 개발했다.

분기별 GRDP 공표가 이뤄지면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간으로도 현행보다 9개월 먼저 속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시계열이 축적

되면 지역 경기의 상승·하강 국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지역 기반 데이터와 지표"라고 말했다. 또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 연간 성장률을 현행보다 9개월 빠르게 제공하는 분기 GRDP를 도입해 시의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응 지원을 위한 통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 발표 및 토론회도 진행됐다. 포럼은 ▲균형발전 전략 ▲균형발전 지표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 한도 대출

산업부, 친환경차 보급 이차보전 사업  
오늘부터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원 한도로 최대 8년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2025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27일~4월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차 전환 투자(투자 계획 중인 기업도 포함)에 나서는 중견·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과 연계해 기업 부담 이자를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목적은 친환경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M&A, R&D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100억원이다. 중소기업

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최대 8년간(R&D자금은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3200억원 상당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은행 선택권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에 광주은행, 제주은행 2곳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6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지원 비중은 시설자금 49개(71%), 연구개발자금 19개(28%), M&A 자금 1개(1%) 순이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결과 은행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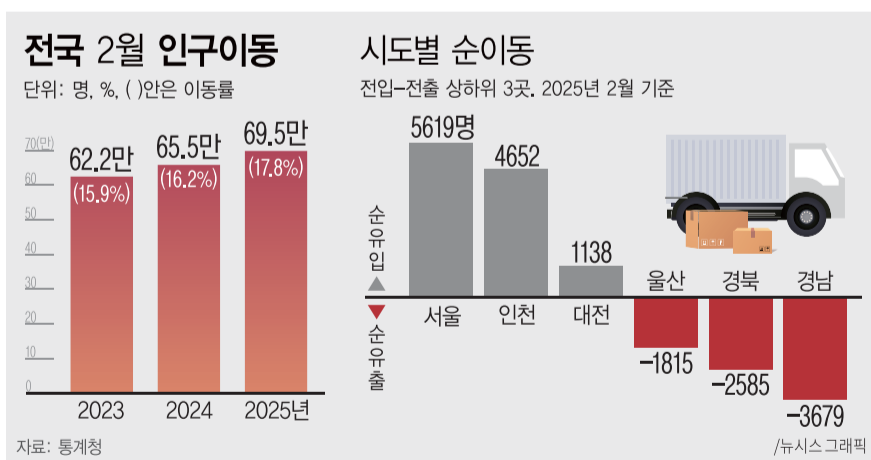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신축아파트 입주에 인구 이동 69.5만명

통계청,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동자 수 2021년 이후 4년만 최대  
인구 순유입 서울 1위, 인천 2위

새 아파트 입주 등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최근 4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월 전국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65만5000명)에 비해 4만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2월(+70만6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다 이동이다. 시도별로 서울 지역으로의 순유입이 5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4652명)이 2위, 대전(+1138명)이 3위, 세종(+679명)이 4위, 충남(+569명)이 5위에 올랐다. 반면 경남(-3679명)을 비롯해 경북(-2585명), 울산(-1815명), 광주(-1449명), 강원(-1116명) 등에서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순유입이 된 것 같다. 대전이나 부산도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0.7%를 차지했다. 그 외 (39.3%)는 시도 간 이동자였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 수는 각각 5.2%,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1.6%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7.8%)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13.4%)부터는 4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5명으로 1년 전보다 0.5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월 0.80명에서 올해 1월 0.88명으로 반등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2022년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환경부, 전 세계 19번째 공식 활동

국내에도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팅이전 그룹)이 출범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27일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연합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

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됐으며, 1700여 개 금융기관·기업 등이 가입해 있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 환경부 및 31개 기관이 설립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는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이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한다.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북구 5개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둔 나라가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절반이라도 돌아와라”... 의대 집단제적 앞두고 복귀 독려

교육부, 내년 의대증원 동결 조건  
전원 복귀서 절반가량으로 낮춰  
대학 40곳, 이달 말 마감기한 지정  
의대생에 서한 보내며 복귀 촉구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등록은 여전히 저조해, 학칙에 따른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6 의대 증원 동결'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었지만, 정부와 대학은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학교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이달 말까지 대부분 의대가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하지만 의대생 등록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동맹휴학중인 학생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붙여져 있다. /뉴스1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은 50%를 상회하는 인원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도 절반 가량 의대생이 복귀를 선택했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로 내놨지만, 최근 이를 수업 정상화 수준인 '절반가량'으로 낮춰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한명 빠짐 없이 전부 돌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대부분은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을 지정한 상태다.

복귀 기한을 28로 정한 전북대의 양 오봉 총장은 25일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양 총장은 "휴학·복학, 수강신청, 유급·제적 등 학사 업무는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총장은 의대 보유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이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엔 '원칙 대응'하겠다는 의대 전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귀 시한이 이달 27일 오후 5시인 서울대 의대도 학장단이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27일까지 복귀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업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한편, 의대생들이 절반가량 돌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되더라도, 의대생 대규모 제적 사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의대들이 의대생 집단휴학 시 제적 조치를 예고하며 '원칙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1학기 등록 절차를 끝낸 연세대는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도 문자와 이메일로 제적 예정을 통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86% ‘50대 이상’”

남성·1인가구 비율 가장 많아  
채무 발생 원인 '생활비 부족'

작년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302명(건) 중 86%가 50대 이상이었으며, 1인가구가 68.4%에 달했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였는데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가 90.2%로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2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728건 중 15%에 달하는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올해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 86%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연령층은 5.2%로 전년 4.4%보다

소폭 늘었다.

파산신청자 중 남성은 61.8% (805명), 여성은 38.2% (497명)로 남성 비율이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81.7%에서 이듬해 83.5%로 오르고, 올해는 83.9%를 기록하면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74.5%)이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과 탄' (27.9%)이 다음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했다.

또한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6% (1115명)였고 정기 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 (93명), 0.6% (8명)로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청인 82.0% (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2%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2013년 7월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올해 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준공 예정

정근식 교육감,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교육청 신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신청사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사의 공정률은 지난 1일 기준 40%이다.

현재 사용 중인 종로구 청사는 1981년 지어져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직무 공간과 회의실 및 민원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해 증·개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 구(舊) 수도여고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내부조감도./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개방과 소통의 광장'이라는 설계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9937㎡ 규모로 건설된다.

신청사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특징이다. 1~3층에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북카페, 커뮤니티 계단, 컨퍼런스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4~6층에는 ICT 기술 활용에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클라우드 프린팅, 자율좌석제를 적용한 스마트 직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고용안정금'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신규 운수종사자·장기근속자에  
각각 월 20만원·5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2019년~2024년 법인택시기사 인원 및 일평균 운행대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인택시기사	30,527명	24,507명	20,888명	20,599명	20,430명	20,358명
일평균 운행대수	17,088대	14,467대	12,664대	11,981대	11,996대	12,016대

/서울시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만 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연년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혁신행정 등으로 2년 연속 선정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4년 실적 기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민 중심의 혁신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총 17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고양시는 기관장의 관심도,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별, 교육·홍보 실적 등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

안 해결, 우수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고양시가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꼽힌 배경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사례 발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지원한 정책이 손꼽힌다.

고양시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 확대, 포상 강화, 공무원 보호제도 도입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집중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등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고객 입맛이 답이다’... 식품업계, 가성비·참여형 제품 러시

기획 초기부터 소비자 의견 반영  
도미노·본죽, 고객과 만든 메뉴  
GS25·바른치킨, 협업형 인기



챗GPT에 의해 생성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 이미지.

소비자맞춤형 제품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해 대용량 제품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직접 참여로 탄생한 제품들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hy는 인기 제품인 ‘호우섬 홍콩 밀크티’를 1000ml 대용량으로 선보였다.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한 이 제품은 “홍콩식 정통 밀크티를 선호하는 고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사랑받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우유도 ‘아침에유스 유기농레몬즙’을 기존 소포장 대비 넉넉한 30포 구성으로 출시하며,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했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대용량 제품 출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왕메가 카페라떼’ 등 대용량 음료를 포함한 봄 시즌 신메뉴 19종을 내놓았고, 건강 스낵인 ‘엠지씨네 메가칩’도

한정 수량으로 대용량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넉넉한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 기획 초기부터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도미노피자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고객 투표를 통해 가장 먹어보고 싶은 해외 인기 피자를 선정하고, 1위를 차지한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피자를 정식 출시했다. 실제로 이 피자는 출시 직후 시그니처 메뉴인 포테이토 피자에 이어 판매 2위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본죽도 고객 참여형 신메뉴 개발에 나섰다. ‘프리미엄 보양죽 레시피 패키지 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접수된 576건의 아이디어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해 5월 신메뉴를 선정할 계획이다. 편의점 GS25는 유튜브 예능 콘텐츠와 협업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위로(U.P) 도시락’을 출시했고, 바른치킨 역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국민치킨 2종’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식품업계가 신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의 피드백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을 넘어서 시장의 흐름과 요구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내부 아이디어만으로 기획한 제품은 소비자와의 간극으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크지만, 사전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은 초기 반응부터 호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도는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봄바람 타고 세일경쟁 ‘후끈’... 패션·잡화 최대 ‘반값’

백화점 3사, ‘전국 세일전’ 스타트  
체험·이벤트 등으로 고객몰이 나서



브랜드 관계자가 봄 시즌 맞이 행사 상품군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신세계백화점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가 본격적인 봄맞이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1월 명절 특수가 사그라들고 2월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계절 특수를 겨냥한 봄 정기 세일로 소비 진작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일제히 봄 시즌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롯데백화점은 전 점포에서 봄맞이 ‘스프링 세일’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총 4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봄 정기 세일을 통해, 봄·여름 신상품을 포함한 상품을 최대 50% 할

인 가격에 제공한다. 남성·여성 패션부터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아웃도어 등의 상품군이 마련됐다.

러너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는 내달

12일, 스포츠 브랜드 ‘베가베리’와 함께 하는 ‘잠실 모닝 시티런’ 러닝 클래스가 열린다.

신세계백화점도 봄맞이 정기 세일 ‘신백멤버스페스타’를 통해 봄·여름 신상품 수요를 겨냥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연다.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전 점포에서 진행되며, 스포츠, 남성·여성·영 패션, 아동, 생활 등 약 400여 개 제품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봄 신상품인 니트, 가디건을 비롯해 지난해 이월 인기상품 등 행사 물량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늘리고, 전 장르에서 다양한 기획상품을 확대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봄맞이 정기 할인 행사 ‘더 세일(THESALE)’을 진행

한다. 행사에는 패션, 잡화, 스포츠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시즌 신상품과 일부 오프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행사 기간 판교점 9층에서 유아동 팝업스토어 ‘타이니아트월드’를 열고, 대형과 일블록을 조립하는 ‘프루츠플레이’, 함께 네컷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프루츠컷’ 등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이상 기후로 봄 기온이 평년보다 빨리 오르면서 러닝과 나들이 수요가 3월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야외 활동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정기 세일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스타벅스 스누피 컬래버레이션 음료·푸드 등 선보여

스타벅스 코리아가 피너츠(PEANUTS™)와 손잡고 27일부터 스누피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스타벅스와 피너츠의 핵심 이념인 ‘친절함으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한다’에서 영감을 받아 친절, 커피, 커뮤니티를 메인 테마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는 친절한 모습을 강조한 스누피인 ‘조 카인드 스누피(Joe Kind Snoopy)’를 새롭게 선보이고, 이를 테마로 한 음료, 푸드, MD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

/신원선 기자

# 한미약품그룹 “신약개발로 기업성장 속도” ‘컴포트잇츠이너프’ 200만 봉 판매 돌파

창업주 일가 경영 일선서 물려나  
김재교 대표 선임, 지배구조 정상화

롭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정기 주총 직후 이사회까지 진행해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김재교 선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영 체제 측면에서 불안했던 부분들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영숙 회장은 이날 주총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은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오늘 이후로 털어내고 오직 주주가치 제고만을 위한 길을 걷는 한미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조화를 이뤄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정신과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출시 50일 만에 시장 안착

롯데웰푸드는 지난 2월 선보인 영양 강화&식사대용 제품 브랜드 ‘컴포트잇츠이너프’가 론칭 50일만에 누적 200만 봉 판매를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제과 신시장을 개척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한국인 8명 중 1명 이상(13%)이 과자나 초콜릿 등 스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식사의 스낵화’ 바람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식품업계는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 통곡물, 채소 등으로 식사하는 저숙노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이같은 동향을 일찌감치 파악해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먹거리를 ‘컴포트잇츠’로, 자신만의 방식

으로 건강한 하루를 꾸리는 사람들을 ‘라이프 퍼포머’로 정의했다. 이어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컴포트잇츠이너프(ComfortEatsEnouF)’를 론칭했다. 함께 출시한 ▲베이크드쿠키 ▲토스티드브레드 ▲골든츄이바 ▲큐브케이크 ▲셰이크밀 ▲클래식보리밀 등 6종의 신제품은 통곡물과 100% 국내산 압착보리를 주원료로 해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유량은 높이고 당과 포화지방, 나트륨은 줄인 것이 특징이다.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출시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며 “구덕하면서도 촉촉해 맛있고 든든하다”, “성분도 좋은데 상큼하고 달콤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원선 기자

## LG생활건강 UV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 광노화 초기부터 ‘예방’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렉서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UV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UV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더후 선 제품의 특화 성분인 ‘더후 안티옥시던트 로얄 베리어’, 아스타잔틴과 비타민B12를 복합한 ‘레드 바이탈 콤플렉스’ 등을 활용한 제품이다. 항산화 효과를 갖춰 광노화 초기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피부 탄력 강화 성분으로는 공진솔루션을 함유해 주름 개선 기능까지 갖췄다.

기능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끈적이지 않는 발림성과 높은 피부 밀착력을 구현해 편안하게 수차례 덧바를 수도 있다. 원료 특성에 따라 제품 제형은 자연스럽게 핑크빛을 띠는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최태원,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체계 구축



11년째 대표이사 역임... 2028년까지 3년간 임기  
“핵심산업 가치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사내이사 강동수, 사외이사 이관영·정종호 선임



SK서린사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 SK(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이사회 중심 리밸런싱(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책임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34차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까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통합지주사 출범 이래 11년째 대표이사를 역임하게 됐다. SK주식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SK스퀘어,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바이오팜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S

K그룹의 지주사다.

정기주총의 의장을 맡은 장용호 SK 사장은 최 회장의 사내이사 추천사유에 대해 “SK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하며 회사 및 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적인 이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며 “핵심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등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및 재무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SK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SK

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회장도 겸임하면서 그룹의 주력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또한 올해 SK 주주총회는 단순한 임원 인선과 재무제표 승인 등 전통적인 안건을 넘어 이사회 전문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 이외에도 강동수 PM(Portfolio Management) 부문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출됐고, 사외이사로는 이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전 고려대 연구부총장)과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6년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 염재호 사외이사를 이어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인 김선희 사외이사가 의장으로 신규 선출됐다.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최 회장의 취지로 해석된다.

최 회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언급하면서 수익 마진, 고객만족도, 지속가능성 등 핵심 성과지표를 최적화해 사업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내이사로 재선임 된 만큼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재무구조를 최적화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최 회장의 뜻에 따라 최창원 SK 디스크버리 부회장은 지난해 수펙스추진협의회(수펙스) 의장을 맡아 그룹 리밸런싱을 진두지휘하면서 SK의 비주력사업과 지분정리 등을 통해 종속회사 정리 및 순차입금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SK 관계자는 “SK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해 이사회에서 현장의 경영 감각이 살아있는 현직 전문 경영인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변화·혁신 골든타임... 배터리 주력 성장”



구광모 회장 “질서의 거대한 축 변화 LG에게 ‘새로운 성장의 사고’ 요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와 같은 미래 국가 핵심 사업을 그룹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회장은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고, 권봉석 (주)LG 부회장(COO)이 구 회장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구 회장은 올해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해 “글로벌 국제 관계와 경제 환경의 변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시대 질서의 거대한 축이 변하고 있다”며 “이는 LG에게 ‘새로운 성장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 아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치를 이끌어내어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 여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LG가 부응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가운데)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에서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그룹이 ‘컴플라이언스 경영’과 ‘신성장 동력 육성’ 두 개의 축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을 하겠다”며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있어 LG 구성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 내실 있는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LG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삼은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주력사업의 시장지배력을 보다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 분야에서 차별

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미래 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와 같은 산업은 미래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정기술 등에서의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LG는 이날 권봉석 (주)LG 부회장과 하범종 (주)LG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보통주 1주당 3100원, 우선주 1주당 3150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AI 피라미드 2.0’ 중심 향후비전 제시



정관 일부 변경 등 3개 안건 통과

SK텔레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4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이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연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2명의 이사 선임 등 총 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은 연간 매출 17조9406억원, 영업이익 1조8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4.0% 증가했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3540원으로 확정됐다.

유영상 CEO는 주총 자리에서 2024년 실적과 함께 SK텔레콤의 AI 사업 전략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AI 사업 성과 창출 전략인 ‘AI 피라미드 2.0’을 중심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AI 피라미드 2.0’은 기존 전략에서 선



SK텔레콤은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 41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유영상 CEO.

/SKT

택과 집중을 강화한 구상으로, AIDC 분야에서는 구동형 AI 클라우드(GPUaaS),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전용 AI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등 4개 모델로 세분화해 시장을 공략한다.

B2B 영역에서는 기존 엔터프라이즈 AI 및 AI 클라우드에 더해, 올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를 통해 수익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B2C 영역에서는 가입자 890만 명을 보유한 AI 에이전트 ‘에이닷’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완결형 AI 서비스 ‘에스터(A\*, Aster)’를 연내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AI 중심, 기대에 걸맞은 미래 열어갈 것”



을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다.

올해 SK네트웍스는 ▲보유 사업들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력 확보 ▲AI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및 AI 성장 방향성과 비전 정립 ▲AI 컴퍼니 비전에 걸맞은 역량과 조직문화 구축 등 3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초 역량이 탄탄한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SK네트웍스는 사내이사로 최성한 사업총괄 사장을 재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로 김기동 SK(주) 재무부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게임성·기술력 등 기본에 충실할 것”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R&D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사업 전략을 주주들에게 보고하면서 게임성, 기술력 등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이뤄낸 핵심 성과 중 ‘워림 엔씨소프트’를 강조하며 올해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엔씨소프트는 매출 1조5781억원, 영업손실 1092억원을 기록한 데 대해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이 주된 요인이었고, 일부 신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미국 법인의 신규 리더십을 확보, 베트남 신규합작법인 설립, 아마존과 협업해 ‘쓰론 앤 리버티’를 지난해 10월 글로벌 출시, 450만명 유저를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기존 IP를 재정비하고 출시 예정인 신작과 퍼블리싱 타이틀의 기술·게임성 평가 기준을 높여 전사적으로 개발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www.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불피해 함께 극복”... 재계, 성금·물품 등 현장지원

주요 그룹, 잇따라 성금 전달  
차량·가전제품·구호키트 지원도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재계가 경남, 경북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며 30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경상도 및 울산 지역(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세탁물 처리와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기존 소방청에 전달한 소방관 회복지원차량 4대가 피해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들의 안전한 휴식을 도울 예정이다.

포스코그룹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X가 동참해 20억원의 재해 성금을 마련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등 주요 사업 회사 본사가 위치한 경북 지역 이재민을 위해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 피해 주민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해 지원한다.

LG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LG 계열사들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임시대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기 위한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칫솔, 치약,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일대의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배터리 충전 차량을 운영하고, 임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K그룹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 상당의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SK 관계사들은 이재민들 위한 구호 텐트와 매트, 인터넷TV, 와이파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휴대폰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 멀티슈 등을 비롯한 구호 물품을 지원 중이다.

두산그룹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과 생필품 지원, 가옥과 시설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롯데그룹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롯데유통군은 지난 25일 생수, 컵라면, 에너지바, 마스크 등 17종 생필품 1만 8000여 개 상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소재의 롯데정밀화학, 롯데칠성음료

등 13개 롯데 계열사들 역시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생수 2만 병을 전달할 예정이다.

CJ그룹은 경상도·울산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5억원의 성금을 기부한다.

주요 계열사별로는 구호물품 지원 및 임직원 봉사단 참여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맛밤을 포함한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의 구호 물품을 기탁했으며, CJ푸드빌은 뚜레쥬르 빵과 음료수 총 1만 개를 산불 피해 현장에 긴급 지원했다. CJ올리브영도 1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기부로 구호에 참여했다.

에이스침대 안성호 대표도 산불 피해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쾌척했다.

에이스점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기탁하며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구에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토요자동차, 아주대 장학금 전달

한국토요자동차는 지난 25일 아주자동차대학교에 장학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교육용 차량으로 렉서스 LC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명석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왼쪽)과 이병진 한국토요자동차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요자동차



대상, '서울마음편의점' 2.4억 제품 기부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서울마음편의점'에 2억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이번 기부를 통해 그룹의 핵심가치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

## KB금융지주 조화준 이사회 의장 선임

KB금융지주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재무 전문가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아모레퍼시픽 “조선민화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아모레퍼시픽 창립 80년 기념 고미술 기획전 ‘조선민화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새롭게 수집한 작품과 기존에 실물을 감상하기 힘들었던 작품 등 20개 기관, 개인 소장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우리 민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 “韓 전자산업 발전에 헌신하신 분”... 각계각층 애도 물결

##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

김부겸 前 국무총리 등 조문 이어져



故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

고(故)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틀째인 26일, 정·재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삼성전자 전현직 사장단과 업계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사장과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사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특히 한 부회장의 직속 후배인 노 사장은 “애 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은

조문과 유족분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과 고한승 미래사업기획 단장, 다니엘 오 IR 팀장 부사장, 임성택 한국 총괄 부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정·재계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의 발

길도 이어졌다. 권봉석(쑤)LG 최고운영 책임자 부회장은 빈소를 찾아 “한 부회장은 대한민국 전자산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부겸 前 국무총리, 김지형 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등도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장에서 한국 산업을 일으킨 주역”이라며 “갑작스럽게 타계하신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문 첫날인 25일에는 전경훈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사장, 김용관 반도체 부문 경영전략 담당,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임원과 계열사 대표들이 조문했다. 또한 조주완 LG전자 대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다.

한 부회장은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7년간 TV, 생활가전, 모바일 등 주요 사업을 이끌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DX부문장과 생활가전(DA)사업부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의 TV 시장 19년 연속 세계 1위 달성을 견인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장례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 가족 추모공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오늘의 날씨

3월 27일(목)  
음력: 2월 28일

수도권 날씨  
12 ~ 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25 | 해질 / 18:50

연천 10/19, 동두천 11/19, 가평 11/19, 파주 9/18, 서울 12/19, 양평 12/19, 인천 10/15, 수원 12/18, 용인 12/18, 평택 13/18

백령도 6/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주스’ K-BPI 1위

주스시장 ‘골드 브랜드’ 인증

롯데칠성음료 ‘델몬트주스’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Brand Power Index, K-BPI)’ 주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델몬트주스는 치열한 국내 주스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7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며, 2008년부터는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드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델몬트주스는 ‘주스의 정통성’과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연상되는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주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대한민국 대표 주스 브랜드로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사

◆OCI홀딩스 ◇ 승진 △ OCI 대표이사 부회장 김유신

## 부음

▲최재길씨 별세, 김점이씨 남편상, 최성문(디어스이앤씨 상무)·최성해(시사오늘 경제부장)씨 부친상 = 26일 오전 3시30분, 동래보생병원 장례식장 VIP7호실, 발인 28일. 051-531-7100



# 상속세 개편, 본질에 우선해야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이혼하면 세금 없고 사별하면 세금 있다.’ 긍정성 논란이 많은 상속세 제도의 맹점 중 하나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전통적 대명제 속에서 살아 왔는데 혼인이 파탄나서 헤어지면 세금 한 푼 안내고 동고동락하며 해로하다가 사별하면 세금을 물리는 나라. 누가 봐도 이권 아니다 싶을 것이다.

상속세는 번번이 국정감사 등에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됐는데 부의 세습, 부자감세, 세수감소 등의 논란 속에서 유아무야 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무드 속에서 핫이슈가 됐다. 세정당국이 나서서 기존의 유산세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사망하면서 유족들에게 유의미한 자산을 남겨 상속세 신고자가 된 피상속인은 2023년 기준 국세청 통계로 1만9944명이다. 그 해 사망자수 대비 6.8%에 불과하다. 이들 피상속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전체 세수의 2.5%선인 8조5000억원

이다.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규모의 상속세를 낸 사람은 신고자 숫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데도 상속세에 대한 불만은 상속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현 상속세 개편의 주된 배경은 배우자 상속세 같은 불공정 부분만 아니라 자산가 격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도 기업이나 가계 경제의 연속성을 흐르는 통에 불만을 사고 있다.

신고납세자수는 2000년 1400명에서 최근 2만여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는 급증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국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상속세 개편안을 찬성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71%가 원했다.

더 이상 방향성을 다룰 계획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기가 묘하다. 75년전, 한국전쟁이 터졌던 1950년에 입법한 상속세를 그동안 성역처럼 모시며 수호자를 자처해온 세정당국이 기존의 틀을 아예 뜯어고쳐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하는 발상을 한 배경이 좀 궁금하다. 탄핵 국면-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통상질서 재편 등으로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판이다. 이 상황에서 불췌 유산취득세 도입

까지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이야 한계치로 치닫는 주요 유권자 불만을 고려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빅매치(대선 등)에 활용 중요한 선거 자산을 챙긴다는 측면도 봤으리라. 여당인 국민의 힘측이 이번 기회에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채명대표가 나서 호응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개편이나 여타 민생법안이 쉽게 성안되지 않던 상황에 여야가 상속세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나 좀 의아하다. 그 내용을 고민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세수감소를 메울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세수결손 상황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일방적 감세정책이 추가로 남발한다면 나라곳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부자감세의 편법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분처럼 법정상속분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거표를 의식한 졸속 제도 개편이 이어져 그 부작용이 가장 걷기 쉬운 월급쟁이들 소득세로 메꾸는 사태로 연결될 지 자못 우려스럽다.

/산업부장 skc8472@metroseoul.co.kr

# 한화에어로 ‘유증’ 설왕설래



기지 수첩  
이 승 용  
(산업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발표 직후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의 불만은 쏟아졌다. 이를 잠재우고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3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책임 경영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김동관 부회장이 매입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3조6000억원의 0.1%밖에 되지 않는다. 한화측은 공식적으로 글로벌 방산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입장이지

만, 결국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 내 지배력 강화 작업을 통해 승계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증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한화오션 보통주 7.3%를 1조3000억원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한화에어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대부분을 투입한 거래다.

승계 전략의 일환이란 이야기 나온게 된 이유는 매입 시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할 때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입한다. 하지만 한화오션 주가의 경우 고공행진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번 지분 매수로 그룹 내 흠어졌던 한화오션 지분을 한화에어로로 모았기 때

문에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김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화에어로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은 34.7%에서 42.0%로 늘어났다.

또한 한화에너지의 경우 한화그룹 3형제(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등)가 지분 100%가지고 있는 비상장 개인 회사다. 즉, 엄청난 현금을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한테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룹의 승계 절차는 총수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승계를 위해 주주 자금이 동원 돼서는 안된다.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기도는 세심한 자금 운용 전략을 통해 인정받는 승계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기업은 주주들이 떠나게 되어 있다.

/lsy2665@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모르는척하지 않도록, 48년생 공부는 방해와 성 같은 물산, 60년생 재주가 화려했으나 뜻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 72년생 꿈속에서 황금을 얻었다면, 84년생 내일 일을 미리 계획해두자.



37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게 오니 미리 보험을 들도록, 49년생 따오기를 그리려다 집 오리를 그리는 격, 61년생 남의 비위를 맞추려니 자신의 책임, 73년생 집을 지으려면 기본설계에 충실, 85년생 이루지 못한 꿈은 늘 아쉽다.



38년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로운 사람이 생각, 50년생 한사람에게만 많은 장점을 주지 않는다, 62년생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 방향을 찾아보자, 74년생 종일 외로운 나그네 신세, 86년생 부모님의 생전에 가르침에 감사.



39년생 조상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없어질 때를 대비해야, 51년생 사소한 일에 꼭 대들지 마라, 63년생 나이 들수록 지혜는 많아진다, 75년생 머리와 꼬리 없는 생선만 낚는다, 87년생 미안바람이나 지금부터라도 모아놓도록.



40년생 산란하게 하니 일찍 귀가, 52년생 뱃속 깊이 사무친 원수를 만나는 날, 64년생 자식에게 거절만이 능사는 아닌데 방법이 없다, 76년생 보험이 무엇보다도 효자 노릇을 한다, 88년생 현한 지식을 소중히만 여기지 않도록.



41년생 집 없는 거지가 하늘을 동정하는 격, 53년생 새벽부터 상승세니 오늘은 결과를 얻는다, 65년생 부자는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데서, 77년생 그린벨트가 해지되니 황재운, 89년생 억지 부리지 말고 말머리를 돌려라.



42년생 상관없는 일에 참견 말고 물건 정리하여 재고 파악할 것, 54년생 신발 끈을 튼튼히 매고 출발할 것, 66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살게 된다, 78년생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는 있어왔다, 90년생 사직서는 쓰지 말고 출근하라.



43년생 강아지도 사람 키우는 만큼 애정이 있어야 한다, 55년생 업무의 요점을 정리하여 효율을 높여보라, 67년생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79년생 부모공경이 대를 이으니 감사, 91년생 이득이 덩굴째 온다.



44년생 조건이나 이치에 맞는 계약인지 살펴라, 56년생 조직에서 젊을수록 겸손히, 68년생 보람 없이 헛되게 나이 먹은 것이 아니다, 80년생 목이 말라도 샘물을 물려 마시지 않는 정직함, 92년생 진퇴양난 속수무책을 헤쳐 나가야.



45년생 오후는 한가롭다, 57년생 달콤한 말로 하는 협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69년생 농으로 한 말이 진실로 한 말 같으니 말조심, 81년생 적금 타듯 목돈이 들어온다, 93년생 나이 들어 이혼은 신중히 현재 부인은 어진 아내이다.



46년생 인생은 이룬들 어떠리려 저런들 어떠리려, 58년생 어چه 일을 시작하자, 70년생 추수가 먼 친척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 82년생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경영이라 하는데, 94년생 평생 미련해서 유통성이 없어 한숨.



47년생 건강한 신체를, 59년생 용모가 너무 아름다우면 명이 짧다 했으니 성형주의, 71년생 입은 은혜가 생각나지만 갚을 길이 없다, 83년생 화복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95년생 객지에서 고향 생각이 밤을 지새우는 신세가 되니.



김상희의四季  
남 탓 말기

주말에 광화문이며 용산, 여의도가 양단으로 나뉘어 시위가 일상이 되었다. 외출할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토요일에는 차도 많지만, 하지만 시위 인파로 인해 마포와 여의도를 지나가야 하는 도로는 그야말로 어려움 그 자체였다. 여의도 안에 있는 백화점 쪽에서는 백화점에 나오고 들어가는 차로 인해 그야말로 혼잡이 극심했다. 필자가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막히는 도로보다도 택시기사의 끊임없는 짜증 섞인 불평이었다. 차가 막혀서 택시미터가 자꾸 올라가니 조바심을 내는 쪽은 오히려 승객인 필자여야 함에도 말이다.

그 목소리에 가득 찬 부정의 탁한 에너지에 오히려 필자의 마음이 더 불편한 것을 그 기사분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함이 분명했다. 그래서 기사분께 좀 막혀도 괜찮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해도 거의 듣도 없이 계속 낮은 톤의 혼잣말 같지 않은, 다른 차가 좀 끼어들거나 하면 더 더욱 입에 뱀 짜증의 불평이 계속되었다. 참으로 묻고 싶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하면 일이 풀리니까? 분명한 것은 불평이나 불만은 부정의 힘을 불러모은다. 암흑은 어두움을 기운으로 삼는다.

불평불만 짜증 같은 부정적인 말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의 재료가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극명한 예가 바로 이것이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시고 난 후 약삼백 년 후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는데, 그 당시 가장 세력이 컸다고 여겨지는 설일체유부에서 붓다가 말씀한 업사상을 발전시켜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을 설화했다. 중생의 생사유전(生死流轉)이 모두 자신의 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업(業)은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이 업이다. 쉽게 말하면 욕하는 입은 욕 먹고 욕 받음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침단·실용 '봄 맞이 신제품' 봇물 “산뜻하게 우리집 새단장 해볼까”

봄이다. 봄은 새롭다. 긴 겨울을 지내고 보니 집안 곳곳이 눈에 들어온다. 가구, 가전을 비롯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 욕구도 샘솟는다.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이들은 더욱 그렇다. 새 봄에 집을 새로 단장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S8+ 베이지.

/코웨이

## 자유롭게 경도 조절... 맞춤형 수면환경 제시

### 코웨이

####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공기주입 방식 슬립셀 적용... 스마트 컨트롤

봄 결혼 시즌을 앞두고 혼수를 미리 장만하려는 신혼부부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혼수용품 중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트리스다.

코웨이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는 사용자가 언제든 원하는 대로 매트리스 경도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의 침대를 두 개의 독립된 침대처럼 좌우 분리해 각각 경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 취향

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는 코웨이만의 수면 기술인 슬립셀과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9단계의 매트리스 경도를 구현한다. 좌우, 신체 부위별, 수면 자세 등에 맞춰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만들어 준다.

또한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기능을 통해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기 전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는 한 침대를 2개의 침대처럼 좌우 따로 경도 조절이 가능해 체형과 취향이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 미네랄 필터 ‘물·얼음’... 4중 UV 살균까지

### 교원 웰스

####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1kg 대형 아이스룸 구현... 기포 분리기술 적용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얼음틀과 전기포트가 필요 없다.

아이스원은 지난해 4분기 교원 웰스의 얼음정수기 판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시킨 효자상품이다.

R&D 역량을 집약해 개발한 제품은 특허 출원을 끝낸 5개 신기술을 총동원해 성능과 품질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혁신적인 냉각 기술로 업계 최소 수준인 폭 23cm, 깊이 48cm와 최대 수준인 1kg 대용량 아이스 룸을 모두 구현했다. 또, 온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실시간으로 제거해주는 기포 분리 기술을 새로 적용해 물 끊김이나 텀을 방지하는 등 온수 품질도 향상했다.

지난해 정수기 물맛 품평회에서 정수기 부문 최고 등급인 ‘그랑 골드상’을 수상한 ‘미네랄 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미네랄을 함유한 깨끗한 물과 특별한 얼음을 제공한다. 얼음 크기도 큰 얼음, 작은 얼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 용도와 취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교원 웰스

4중 UV살균 시스템으로 출수부, 출빙부, 얼음 트레이, 아이스 룸까지 물과 얼음이 닿는 모든 곳을 빈틈없이 살균한다.

오염되기 쉬운 출수부와 관리하기 힘든 아이스 룸까지 간편하게 분리해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관리도 쉽다. 이때문에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도 위생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용도에 따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수 용량은 반 컵(120ml), 한 컵(250ml), 두 컵(550ml) 단위로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 출수 용량을 10ml, 50ml, 1L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 출수 용량은 최대 2L에 달한다.

## 가라앉은 먼지도 케어... “공기질 걱정마세요”

### 청호나이스

#### 공기청정기 3종

‘디오·A600S·뉴히어로2’ 선배

청호나이스는 오염된 실내 공기질 케어를 위한 공기청정기 ‘디오’, ‘A600S’, ‘뉴히어로2’를 선보이고 있다.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디오는 ‘스마트 AI모드’를 통해 실내 공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절한다. AI패속모드는 공기질이 나쁠 경우 패속 풍량으로 빠르게 정화하며 AI절전모드의 경우 공기질 좋음 단계가 10분

유지 시 팬 가동을 멈춰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

디오는 총 4단계 필터 정정 시스템(프리 필터, 기능성 미디엄 필터, 항균 집진 필터, 탈취 특화 필터)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탈취 특화 필터는 고성능 활성탄을 적용, 탈취 능력이 크게 향상돼 각종 생활 악취는 물론 반려동물 분뇨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또한 사무실, 상업 공간, 레스토랑 등 어떤 장소나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내추럴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전면 디자인은 밤하늘의 별을 수놓은 것처럼 타공 사이로 디스플레이가 밝게 빛나면서 세련미를 보여준다.

또다른 제품 A600S는 계절별로 특화된 기능의 3중 필터(황사방지·탈취강화·집진강화 필터)와 함께 공기오염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기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출력과 저소음 BLDC 모터를 장착해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조용하고 깨끗하게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다.

뉴히어로 2는 공기 흐름을 이상적으로 제어하는 공기역학적 설계를 적용했다. 원통형 구조로 360° 모든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다. 하부흡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디오

/청호나이스

## ‘침대는 과학’ 실용성·디자인 겸비 신제품

### 에이스침대

#### LUCE-III·BMA 1086-C

LED·공간활용 등 개인 라이프스타일 최적화

에이스침대는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침대와 우수한 공간 활용을 자랑하는 침대 뿐만 아니라 ‘침대=과학’ 기술력을 갖춘 최상의 매트리스까지 더욱 편안한 침실 환경을 위한 제품을 두루 출시했다.

이탈리아어로 빛을 의미하는 ‘LUCE-III’는 헤드보드에 설치한 은은한 LED 조명을 통해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아트월 컨셉의 침대다.

고급 인테리어 소재인 템바보드와 따스한 빛의 조화로 낮과 밤에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특히 LUCE-III는 침대에서 독서,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트렌

드를 반영해 버튼으로 간편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LED바를 적용했다. LED바에는 C타입 충전포트를 탑재하고 있어, 최소한의 동작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헤드보드는 최적의 각도로 설계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간단한 소품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해 실용성을 높였다. 전면 쿠션은 생활 오염에 강한 스테인프리 원단과 보풀을 최소화하는 안티 필링 기술로 관리가 쉽다.

또다른 제품인 ‘BMA 1086-C’는 스마트한 공간 활용에 집중한 모델로 미니멀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는 학생이나 싱글에게 추천한다. 특히 침대 하단에 3개의 서랍과 2개의 병커형 수납공간이 있어 겨울용 옷가지나 침구류 등 부피가 큰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

헤드보드에는 깊고 넉넉하게 파인알찬 수납공간을 마련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알람 시계 등 간단한 소품을 둘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돕는다.



LUCE-III

/에이스침대





식품업계  
가성비·참여형  
제품 러시  
니



Life

재계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물품 등 지원  
L4



## 자연 담은 독창적인 가구로 ‘설렘 가득’ 침실을

### 현대리바트

#### 버밀리온

천연가죽·원목으로 고급스러움 더해

현대리바트가 프리미엄 브랜드 ‘리바트 마이스터 컬렉션’의 침실가구 신제품 ‘버밀리온’을 출시했다.

버밀리온은 침대·1인 패브릭 소파·협탁·서랍장·거울로 구성된 하이엔드 침실 가구 라인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주홍빛 절벽인 ‘버밀리온 클리프스(Vermilion Cliffs)’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으며 원목과 천연가죽을 사용해 디테일과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버밀리온은 현대리바트가 ‘고객에게 두근거림과 설렘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출시한 첫 제품이다.



버밀리온 침대는 헤드보드에 색상과 텍스처가 각기 다른 3종의 패브릭을 레이어드로 적용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1인 패브릭 소파는 역시 서로 다른 4종의 패브릭을 사용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협탁은 자연의 형상을 구현한 포인트 디자인을 상부면에 적용했고, 수작

업으로 제작한 원목 다릿발은 밀도가 높고 튼튼한 물푸레나무(에쉬원목)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현대리바트의 기술력은 프리미엄 가구 개발 연구실 ‘마이스터 랩’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스터 랩은 45년 경력의 소재별 전문가들이 모여 제품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친환경 인증에 미끄럼 방지도 아이·반려동물 안전까지 ‘책임’

### 현대L&C

#### 참다움 2.0

바닥재 두께·디자인별 18종 선택

현대L&C가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는 봄 시즌을 맞아 친환경 바닥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주거용 바닥재 신제품 ‘참다움(The Charmdaum)’을 업그레이드했다. 참다움은 기존 1.8mm 제품에 2.0mm 제품을 추가하며 참다움 1.8과 2.0으로 브랜드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두께와 디자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컬렉션은 중 소형 평형대에 최적화된 밝은 컬러와 대형 패턴에 따라 총 18종으로 구성했다.

참다움 1.8은 트렌디한 감성을 반영한 스톤 패턴 3종과 우드 패턴 9종을 포함한다. 대표 제품으로 화이트 콘크리트 질감을 600mm 크기의 대형 패턴으로 구현한 ‘허니 트레버턴’, 잔잔한 스톤 알갱이가 퍼진 콘크리트 테라조 패턴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스트 스톤’이 있다.

참다움 2.0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스톤 패턴 2종과 우드 패턴 4종으로 구성해 공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연출하는



시트 바닥재 ‘참다움’을 적용한 모습.

데 적합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패턴이 특징인 ‘돌체 스톤’과 ‘테디 스톤’은 600mm 크기의 대형 사이즈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며, 우드 패턴은 스테디셀러인 90mm 폭을 주로 적용해 밝은 톤인 ‘서울 오크’부터 미드 톤인 ‘홀리데이 트리’까지 다양한 컬러 옵션을 제공한다.

아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기능성도 갖췄다. 마른 바닥과 젖은 바닥 모두 표면 미끄럼 저항성 테스트를 거쳐 미끄러짐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참다움은 전 제품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비롯해 대한아토피협회의 추천 제품 인증, 국제공인시험기관 F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도 검증 받았다.

## 편한 보행감, 세련된 디자인... 공간 살리는 바닥재

### LX하우시스

#### LX Z:IN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

우드·스톤 등 23종... 친환경 인증도

LX하우시스가 봄 성수기를 맞아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LX Z:IN(LX 지인)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은행목·뉴청맥)’를 추천했다.

LX하우시스가 최근 리뉴얼해 출시한 ‘시트 스탠다드’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시트 바닥재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리뉴얼 신제품은 발포 쿠션층을 새롭게 적용해 더욱 편안한 보행감을 확보하고 세련된 우드·스톤 등 최신 인기 디자인을 추가한 23종으로 출시했다.

특히, 기존 대비 약 1.5배 크기가 커진



LX지인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

디자인 패턴은 천연 석재와 원목의 수려한 무늬를 그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도록 연출한다.

여기에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한 ‘세라믹 스톤’ 패턴은 기존 제품과 달리 이음매 디자인 없이 마치 한 장의 시트

로 전체 바닥을 시공한 듯한 디자인의 ‘올오버(All-over)’ 타입으로 출시해 최근 유행하는 미니멀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다.

‘시트 스탠다드’는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감소·생활환경오염 감소 등을 사유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LX Z:IN 바닥재 시트 스탠다드’를 비롯한 LX Z:IN 브랜드의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실제로 살펴보고 싶다면 가까운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에 방문하면 된다.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는 대형 리모델링 전시장으로 주요 제품을 적용한 주거공간 타입 전 시판부터 개별 제품의 특징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재 라이브러리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테리어 조화를 이룬 구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 “바닥·벽 동일 패턴으로 우아한 무드 연출하세요”

### 동화기업

#### 진 그란데 스퀘어·시그니월

친환경 소재에 뛰어난 내수성 특징

동화기업의 건강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선보인 강마루 ‘진 그란데 스퀘어’와 벽재 ‘시그니월’은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공간을 한층 고급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제품이다.

진 그란데 스퀘어와 시그니월은 석재 특유의 색감과 결을 그대로 담은 8개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두 제품이 같은 패턴을 공유해 바닥과 벽을 같은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어 함께 시공하면 더욱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



진 그란데 스퀘어와 시그니월.

진 그란데 스퀘어는 가로 폭이 넓은 광폭 제품이다. 규격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형태로 총 2종류가 있다.

각각 ▲폭 650(mm), 길이 1220(mm), 두께 7.5(mm) ▲폭 650(mm), 길이 650(mm), 두께 7.5(mm)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을 적용했다.

진 그란데 스퀘어는 동화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소재인 나프보드로 제작했다. 내수성이 뛰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 놓여도 제품 변형이 적다. 원목이나 합판마루와 비교했을 때 찌름과 긁힘에도 강해 마루 설치 이후에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시그니월은 일반 나무 벽재보다 3배 이상 큰 대형 규격으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 시그니월은 폭 1010(mm), 길이 2460(mm), 두께 9(mm)로 출시했다. 시그니월은 벽재 날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 시공 후에도 외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벽면 모서리 설치 전용인 즐리컷 타입을 마련해 인테리어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했다. 즐리컷은 두께 단면을 사선으로 자르는 형태를 말한다.

## 내구성으로 아파트 수명 지키고 맞춤 컬러 디자인으로 취향저격

### KCC

#### 숲으로 듀러블

은폐력·색채 보존력 뛰어나

KCC의 고기능성 수성 페인트 ‘숲으로 듀러블’은 실리콘 변성 아크릴 에멀전 수지를 적용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덕분에 콘크리트 외벽이 공기 중의 탄산가스나 산성비로 인한 균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KS규격의 수성페인트와 비교하면 은폐력과 색채 보존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방수 기능까지 갖춰 콘크리트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한다.

KCC는 컬러디자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 브랜드 매뉴얼 컬러를 분석하고 개발하며 제도장 컬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입주민이 투표로 선정하는 제도장 컬러 디자인에서 KCC의 선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KCC가 제공한 색채 디자인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또한, KCC는 신축 아파트 컬러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한 ‘리액트 VOL. 7’을 발간해 외부부터 내부, 주차장가



KCC의 고기능성 수성 페인트 ‘숲으로 듀러블’을 적용한 이안광주첨단 아파트3 전경.

지 다양한 공간의 우수 사례를 제시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KCC의 디자인 역량은 단순한 색상 제안을 넘어 입주민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장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감각적인 색채디자인과 고기능성 페인트 개발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되는 유니버설 컬러디자인에도 힘을 쏟고 있다.

컬러 유니버설디자인(CUD)은 다양한 색각 인지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디자인으로, 적색맹이나 녹색맹을 가진 사람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도장 분야에 특화된 전문팀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빛바랠수록 더 빛이 납니다

따뜻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 온 97,894시간  
해지고 바랠수록 더 빛이 나는  
이 봉사조끼처럼  
2025년에도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동행**

2024년 한 해,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97,894시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